

# 國土開發의 基本構想\*

朱 源

(建設部長官)

## 目 次

- 一. 序 言
- 二. 開發과 成長
- 三. 計劃의 意義
- 四. 都市 및 地域計劃의 重要性
- 五. 韓國 都市・地域의 特性

## 一. 序 言

各 나라가 걸어온 발자취는 여러가지 있는데, 어떠한 나라든지 自己 나라의 繁榮과 富強을 為해서 온갖 努力を 다하지 아니한 나라가 없다. 그런데 이와같은 富強을 劇策하고 繁榮을 圖謀할려고 하는 무렵에 있어서도 나라마다 擇하는 方式은 반드시 같을것 같지는 않다. 그 중에서도 韓國은 比較的 뒤떨어진 나라中의 하나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그뿐 아니라 二次大戰直後에 많은 後進國家와 거의 길을 같이 하면서 經濟開發計劃을 우리나라 國策의 根幹으로 삼았고, 우리나라가 繁榮할 길은 經濟開發計劃이라는 政策을 세워 가지고 나갔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基本國策인 經濟開發計劃사이에 어떠한 同質性이 있으며 어떠한 異質性이 있느냐 하는것을 理解하기 為해서 都市 및 地域開發에 對한 問題를 開發이라는 問題를 中心으로해서 풀이를 해본다.

우선 開發이라하는 用語 自體가 우리 나라에서는 한결같이 한가지로만 쓰이고 있지만 學問的으로 볼때 成長이라 하는 말과 開發이라 하는 말에는 약간의 差異가 있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 本論文은 1968年 4月 11日에 本大學院에서 行한 特講內容을 基礎로 하여 補完整理한 것이다.  
(編輯者註)

## 二. 開發과 成長

成長 “growth”하는것 하고 開發“development”하는것 하고는 差異가 있다. 成長이라하는 段階를 人類에 對하여 볼때 한살 먹은 사람이 두살 되고 세살되며 이로 말미암아 밥만 먹으면 어느 程度 커지는 段階를 成長段階라고 부른다고 하면 開發段階라 하는것은 그 보다 도나이를 먹어서 20 歲 以上이 되여서 각者가 任務를 가지고 각者の 힘과 努力에 依해서 左右되는 後에 있어서 人間이 걸어온 발자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成長이라 하는 時代는 크게 사람의 性格에 差異없이 어느만큼 방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自然的으로 자라나며, 人間은 그 自體가 나아가게 마련이다. 나아가는 그와같은 過程을 “growth” 成長이라고 부른다고 學門은 區分하고 있다. 이와같은 區分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Marx 이지마는 그 뒤에 “슘페터”같은 사람이 이것을 차츰 發展시켜 오늘에 있어서는 大體로 成長 “growth”하고 發展 “development”하고는 따로히 생각한다.

그러니까 經濟面에서든지 地域面에서든지 成長段階와 發展段階에 있어서는 생각하는 思考方式도 달라야 하고 또 爲政者가 取할 態度도 달라야 한다. 特히 計劃家가 計劃할때도 思考方式에 있어서 根本적으로 差異를 가지고 와야 한다.

그리면 成長段階에 있어서의 計劃과 發展段階에 있어서의 計劃이 어떤 差異가 있느냐? 上記 한바와 같이 成長段階는 自然방치를 하여도 그대로 어느程度 커져 나가고 繁榮하여 나가는 段階인데, 이때에 있어서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만일 經濟計劃을 마련한다고 하면 成長段階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賯蓄을 많이 하여 얼마만큼 投資를 많이 하느냐 하는것, 即 賯蓄과 投資의 結果로서 成長을 圖謀하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아이들에게 밥을 얼마나 먹이느냐? 많이 먹이면 빨리 자랄 것이다 하는 思考方式이며 이런 段階가 곧 成長段階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段階가 지나 가고, 그 사람이 20 歲 前後가 되여 教育을 받고 成長하게 되면 그 사람의 體重이나 身長이 年齡에 依해서 반드시 差異가 나는것은 아닌거와 마찬가지로, 發展段階에 들어가면 그때는 먹는 밥의 量만에 左右되는 것이 아니다. 換言하면 投資에만 左右되는것이 아니다. “슘페터”라든가 그以外 사람들은 이렇게 主張하고 있다. 그때 부터는 經濟發展은 階段的으로 一定한 發展을 하였다가는 쉬고 또 다시 發展을 하고 또 쉬다가는 發展을 하는 이와같은 階段的 發展을 하는 것이고 때때로는 反動을 일으켜서 오히려 沈滯을 하고 그것이 다시 발판이 되여 가지고 더 크게 發展을 하는 形態를 取하게 된다. 이럴때 要素는 大體的으로 企業家의 創意이다. 여기서 企業家란 돈벌이 하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創意力이 結局에는 經濟를 發展시키는 가장 真實한 힘이라는 것이다. 企業能力에 있어서 企業을 經營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事業하는 사람의 創意力이 結果로는 經濟成長에 있어서 가장 核心的인 要素를 이룩한다. 이

때부터 가장 큰 問題가 되는것이 科學技術의 發展이다. 科學技術의 發展이 第一次的으로 作用하는 面이 땅 이다. 이것이 經濟發展의 計劃에 있어서의 理論이다.

$$\begin{aligned} \text{生産段階에 있어서 } Y &= \frac{S}{C} \cdots \cdots \cdots (1) \quad Y; \text{ 國民所得} \\ &S; \text{ 賯蓄} \\ &C; \text{ 資本係數(capital coefficient)} \end{aligned}$$

어느때든지 이것은 既存技術의 逆數이니까 資本係數가 적거나 賯蓄이 많거나 하면 經濟는 成長한다. 이런 段階를 일컬어 우리가 成長段階라고 한다.

發展段階에 있어서는 이와는 다르다.

$$P = bL^k C^{1-k} \cdots \cdots \cdots (2)$$

P; 生產性

b; 常數

L; 勞動의 生產性

C; 資本係數

勞動生產力과 資本生產力의 總和가 生產을 刺戟한다. (1)과 (2)式에 있어서 Y와 P는 비슷한 것 이니까 勞動의 生產性과 資本의 生產性이 結局에는 生產手段이 된다. 이때에 있어서 勞動의 生產性은 技術과 創意이다. 이렇게 보면 生產函數의으로 分類해 나갈때는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發展段階라고 經濟計劃에서는 大體로 일컬으고 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問題는 여기서 보는바와 같이 Y가 아무리 커드라도, 經濟가 發展하여서 國民所得이 增加되고 또 生產이 많이 되었다해서 果然 人類社會가, 우리 韓國이면 韓國國民이 幸福한 國民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再考를 要하는 問題이다. 지금까지 본것이 經濟計劃 할때의 理論的 根據이다. 그러나 都市와 地域開發計劃을 論題로 할 때에는 이것과는 약간 다른 根據 밑에 선다. 첫째로 第一 重要한것이 이렇게 하면 投資를 크게 하는가 하는 것이다. 어느 段階에서든지 兩쪽 다 돈이 첫째다. 即 投資能力이 첫째다. 投資能力이 生產段階에서는 絶對的인 要素가 되고 發展段階에서도 돈이라 하는것이 重要한 一面을 가지고 있으며, 經濟計劃을 할때도 역시 基本的인 一面이다. 國土計劃이라 할까 都市 및 地域計劃을 말할때는 이것 과는 根本의으로 약간의 差異가 있다. 여기서 計劃이라는 問題를 다시 되풀이 하고 國土計劃 및 都市計劃에 對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 三. 計劃의 意義

우리가 計劃이라고 할때 그 用語를 풀이하면 여러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오늘

은 木曜日이고 오는 日曜日에는 休日이니까 우리 몇몇 사람이 picnic를 가자라는 計劃을樹立할 수 있다. 또한 오늘은 金曜日이고 夜間에 여기 와서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來日 아침에는 이런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計劃을樹立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計劃은 近代計劃學에서 일컬으는 計劃은 아니다. 다시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都市 및 地域計劃이라든가 혹은 經濟計劃이라든가 혹은 社會計劃이라든가 부르는 計劃은 이런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富強하고 強力한 軍隊가 있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이웃 나라를 한번 侵犯하여 그 나라의 財產을 약탈하고 領土를 얻어보자는 그와같은 計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것을 近代計劃學에서는 計劃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近代科學으로서 計劃學이 學問으로 完成된 것은 훨씬 뒤 늦은 일이다.

첫째로 그것이 完成되것은 1925年부터 1930年 사이라는 사람이 있고, 둘째로는 1935年에 와서 비로서 學問으로서의 體系를 갖추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如何튼 最近에 와서 이루어진 學問이다. 計劃學에서 일컬으는 計劃은 自己自身의 判斷에 依해서 自己行爲의 責任을 지는 그러한 體制下에서 自由로운 活動을 許容하고 自己의 活動에 依해 이루어지는 結果를 自己가 지는 이러한 雾圍氣와 이러한 社會에서, 即 自由主義社會에 있어서는 그러한 自由로운 判斷과 自由로운 行動이 結果的으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適用되는 것이 아니고 適用되어서는 안된다는 自由主義社會에 對한 批判에서 먼저 일어 났든 것이다. 그 理由는 計劃이란 한 社會의 成員全體의 福祉를 增大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지 않는 限 이것은 計劃이 아니기 때문이다. 即 한 社會를, 한 國家를 또는 한 地域 住民全體의 福祉에 極大化를 기여할 수가 있는 計劃이 아니면 그것은 計劃이 아니다. 그以外의 것은 이름은 計劃이라 불려도 計劃上에서는 計劃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런것이 計劃의 定義라고 들고 있다. 그런 까닭에 計劃에 對해서 여러가지로 재미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부루엘” 같은 사람은 「計劃없는 어떠한 行爲도 計劃있는 어떠한 行爲보다 못하다」라고 말했는가 하면 최근 U.N. 公報(Bulletin)에 의하면 「計劃을 中斷있게 하거나 計劃을樹立할때 注意가 缺如했을 때 人間社會에서 가장 미참함을 가져오는 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것은 計劃이라는 用語가 社會成員의 福祉增大를 가져온다는 意味에서의 計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福祉의 增大”라는 用語가운데 福祉라는 것은 結局 慾望의 充足度를 意味한다. 充足度라는 것을 무엇으로 봐야하는가? 이는 미터, 그람, 고무로도 測定할 수 없고 또 各者가 느끼는 効用의 價值도 다를 것이다. 그와같이 모든 다른 價值를 綜合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問題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不可能하다고 한다면 計劃이라는 學問은 存在할 수 없는 學問이다. 이것이 오랫동안 計劃學이 어렵다는 理論의 根據였다. 그러나 이것 이 차츰 計劃이라 하는것을 마련할때 있어서의 可能한 學問으로 發見되었다. 이의 發見은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것이나 들으면 웃을만큼 極히 簡單한 것이다. 즉 假定(assumption)으

로서始作하는 것이다.

첫째로 돈으로 計算할 수가 없는 모든 事態는 計劃할 때 도중에서 省略하자는 것이다. 一面의 畫幅을 바라보았을 때 나와같이 異美感이 적은 사람들은 10 원이나 100 원 程度밖에 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數千, 數百萬원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보는 사람마다 滿足感이 다르고 價值觀이 다르다. 이런 것은 通常의 價值觀으로서 決定해 버리고 그 以外의 것은 버리자 하는 그런 假定을 먼저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經濟計劃이든 都市 및 地域計劃이든 間에 먼저 假定을 세울 때 돈으로 換算할 수 없는 것은 버린다는 假定을 세우지 않고서는 計劃은 成立할 수가 없다. 經濟計劃에 있어서는 G.N.P의 成長으로서 福祉를 測定한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 하여 보면 人口三千萬 國民 가운데서 겨우 1割도 못 되는 約三百萬 程度가 所得이 半程度가 되고 그 以外의 사람은 所得이 훨씬 낮다. 그러한 狀態에 있다고 하면 그 總和 所得  $Y$  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福祉를 計算할 때 福祉向上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多數因性가 極히 不滿足한 福祉가 나아진 福祉를 받고 있을 때는 少數의 富者라든가 少數의 階級이 크게 向上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福祉가 向上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Y$  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計劃은 잘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을 經濟計劃에서는 互視的으로 본다는 觀點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國土計劃에서는 그와는 약간 다른 基點을 두고 事態를 본다.

國土란 歷史的인 產物이다. 이제 이 時代에 있어서는 歷史的으로 우리의 國土를 三千里錦繡江山이라고 일컬으고 있으나 一定한 國土는 그것을 變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또 擴張할 수도 있으며, 또한 그것을 더 다시 어찌 할 수가 없는 歷史的 產物이라고 一應 보아야 한다. 그러면 그와 같은 國土를 中心으로해서 그 위에 사는 것이 國民인데, 國土와 國民을 如何히 連結시킴으로서 國土의 資源을 活用하며, 活用하는데 있어서도 國土 위에서는 國民의 天賦의 努力を 어떻게 잘 利用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問題를 생각할 때 소위 都市·地域計劃의 問題로 發展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때 經濟計劃에서는 언제든지 돈이 問題가 되지만 國土·都市·地域計劃에서는 國土 即 땅이 問題가 된다. 땅의 利用을 如何히 하고 如何히 하여서 땅을 가장 잘 쓰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都市地域計劃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要素가 된다. 都市·地域計劃, 國土計劃에서는 計劃을 이런 方法으로 다룬다. 그러나 勿論 都市計劃하고 經濟計劃하고는 具體的인 計量分析을 해나갈 때면 거의 같은 方法으로 해나간다. 日本의 第三次經濟計劃은 都市計劃의 手法에 依해서 만들어 진 것인데 이는 同經濟計劃의 前文의 맨 첫 머리에 나와 있다. 都市計劃과 經濟計劃은 거의 類似한 方程式을 많이 쓰지만 그 基本은 같다 할지라도 手段에 있어서는 差異가 있다. 하나는 돈(capital), 하나는 땅(physical)이라는 點에서 差異가 나타난다. 計劃이란 形式上으로는 한 가지의 目的이 있고 그 目的에 到達하기 爲해서 手段이 있으며 이 手段과 目的을 連結시켜서 文書로 만든 것이 plan(計劃)인데 그 目

的과 手段 사이에 있어서 하나는 돈을 中心으로 하고 하나는 땅(physical size)을 中心으로 한다는데 差異가 있는 것이다.

勿論 한 國家를 發展시키기 為해서 經濟計劃・國土計劃・都市・地域計劃을 國土計劃이라고 一應 한 單位로 擇한다면 그 外에 社會計劃이라고 하는것도 있다. 각 나라에서 計劃이 이루어 진것을 形態의으로 본다면 처음에大概 다 國土計劃이 먼저 이루어지고 다음에 社會計劃으로 變質되고 經濟計劃이 마지막으로 發展한 것인데 最近에 와서는 經濟計劃이 앞서고 그 뒤에 社會計劃이나 國土計劃이 따라 나가는 나라가 대부분인것 같다. UN에서 다루는 用語는 社會計劃과 國土計劃을 한군데 끌어서 이것을 社會計劃이라고 부르고 있다. 昨年再昨年에 “존슨”美國 大統領의 年頭敎書中에 나타난 社會計劃云云의 問題는 韓國에서 쓰는 局限된 意味의 社會計劃을 뜻하는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말로서 理解할 수 있다. 農村地域은 特別地域으로 하여서 特別히 保護하고 都市地域에 對해서는 特別한 開發政策을 쓰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일컬으는 社會計劃과는 全然 다른 말로 表現되여 있는것도 敎書全體에서 “社會計劃”이라고 일컬으는 것은 UN에서 쓰는 用語를 그대로 따른 까닭이다. 또 日本의 現在 “가등”首相, “샤또”首相이 就任 當初에 主張한 社會開發이란 用語도 如前히 같은 意味로 쓰여진 것이다. 이와같이 國土計劃과 社會計劃은 漸次的으로 한 군데로 합쳐지고 經濟計劃이 뒤따라 發展해 왔는데 發展해오는 무렵의 經濟計劃 그 自體가 다시 두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하나는 돈으로서 만이 한 社會가 發展할 수 있다는 思考方式에 對해서 커다란 興味를 提起하는 사람들이다. 이름을 들면 “야루야루”라든가 “알라”等 여러 學者들이 기의 그러한것을 主張하였다. 그들의 大部分이 主張한것은 所謂 urban society, rural society에서 많은 影響을 받아서 그런 主張을 하는데 우리와 같이 單一民族이 아니고 外國人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oriental foreigner가 있는 三重社會에다가 그 地方의 住民과 華僑, 그리고 白色外國人の 세가지 層이 經濟權을 모두 쥐고 있는 이런 社會에서 볼때 돈으로 社會의 發展을 圖謀하겠다고 하는것은 거의 不可能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疑問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主張은 마치 國土計劃이나 社會計劃이 接近한다는 主張과 類似하다. 아직도 그와같은 主張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그것으로 나라의 發展計劃을 樹立한 나라도 있다. “이스라엘”이 典型的인 國家中의 하나이고 “푸에 트리고”도 이런 類의 나라도. 그러나 日本은 그렇지 않고 역시 典型的인 成長과 發展段階로서 그나라의 計劃을 樹立해야 되겠다는 主張에 서 있다. 韓國에서도 經濟發展計劃 當時 어떤 形態의 計劃 Model을 取할 것인가에 對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마지막의 結論이 역시 計量方式에 依한 方式을 쓴것은 그 當時의 果敢한 決心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韓國의 經濟開發計劃은 經濟計劃이라는 名稱下에서 세가지 計劃을 한묶음 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國土計劃과 社會計劃만을 包含하고 있다. 이것은 政府의 五個年 計劃을 본다면

그렇게 分類가 되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역시 一部에서는 돈으로 開發計劃을 樹立한다는 無謀를 強力히 否定하고 있는 사람이相當히 있다는 事實을 우리가 머리에 두어야 할것이다. 一部에서는 最近에 더욱 그와같은 主張이 조금씩 힘을 얻어가고 있다. 一部 經濟計劃을 하는 學者들이 이런 傾向밑에서 다루는 方法을 U.N에서 發表하였을때 그러한것은 學的 遊戲이며, 知識을 가진 사람들의 장난이라는 혹평을 받았던 것이다. 그當時 그와같은 혹평이 크게 들리지는 않았는데 最近에는 計劃을 專攻한 사람들이 모인 大衆學會라든가 座席에서 이런 問題가 심심치 않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國土・都市・地域計劃과 같은 國土計劃은 땅이 하지 않은 經濟計劃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나라가 發展을 期할 수 없다는 主張이 強力히 대두되고 있다.

#### 四. 都市計劃의 重要性

國土・都市・地域計劃에 있어서 主된 要素는 如何히 하여 國土를 가장 잘 쓸수가 있겠는가, 그리하기 爲해서는 어떠한 方法으로서 天然을 調節할것인가? 또 그와같은 天然을 改造할 무렵에 있어서 地域과 地域과의 사이에 있는 空間의 差異를 如何히 併用할 수 있는가? 이 세가지가 都市・地域計劃에 있어서 가장 主된 要因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각己 한 項目씩 metrix로서 計量化하여 計算한다. 國土計劃學會에서는 地域相關에 對한 計量的 分析을 하여 外國에 發表한 方式이 있다. 韓國에서 展開된 것이고 外國에서도一部分 하였지만은 韓國에서의 方式은 外國과는 조금 다른 方式이고 지금 ECAFE에서도 그 方式을 가지고 今年부터 一部地域에서 試圖 하고 있는 方式이 있지만 計量的으로 하는 것이다. 如何튼 이와같은 事態로서 國土・都市・地域計劃이 發展하고 있다는 事實만은 理解를 하여야 한다. 韓國이 經濟計劃을 中心으로해서 밀고 나가면서도 國土計劃을 꾸준히 밀고 나가지 않고서는 解決이 어렵다 하는것이 今年에 와서 더욱 顯著히 나타나고 있다. 前번에 大統領께서 第二의 經濟라고 말씀하신것도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이제 말한바와 같이 돈만 가지고 經濟成長을 圖謀한다는 것은 社會나 國家의 近代化에 반드시 捷徑이 아니고 그 以外의 무슨 要素가 있는데 그 要素가 第二의 經濟라고 한것으로 우리들은 解說하고 있다. 例를 들면 비누 하나를 가지고 빨래를 한다고 생각한다든가 연필 한자루를 가지고 글을 쓴다고 할때에 그 使用하는 方法에 따라서 効用을 倍로 느린다든가 적어도 몇 %는 더 느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돈으로 計算할 수 없는 것인데 最近에 이와 같은 것을 돈으로 換算하기 爲해서 教育에 쏟돈이 얼마만큼 經濟成長에 이바지 하였는가 하는것을 計算한 사람들이 있다. 美國이 20年間에 12% 程度이고 쏘련이 16% 程度이다. 韓國 것은 本人이 한번 計算해 본적이 있는데 이것은 經濟科學技術處에서 發行하는 年鑑에 나와 있다. 韓國 것을 보면 3年間에 4.8% 이니까 1年間에 1.6% 程度 이바지 하고 있다. 이러한 比率은 꽤 높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事實은 後進國일수록 教育自體가 經濟成長에 이바지 하는 것이 높고 先進國일수록 낮다는 것을 大體로 示唆하는것 같다.

이러한 때 經濟計劃 만으로는 足하지 못하고 國土開發計劃과 都市·地域計劃이 必要하게 되는 理由에는 세가지가 있다.

첫째 理由로는 우리 社會의 組織과 制度上의 特徵에 基因 한다. 여러분이 아는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封建社會로 부터 資本主義社會로 移行한것은 大概 日本사람들이 들어온 後부터이다. 1910년이라고 記憶하는데 그때 金融組合制度가 實施되었고 1907年에 土地調查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記憶한다. 그때를 契機로 하여서 우리나라가 資本主義社會로 移行한 것이다. 移行은 하였으나 어떤 社會이든지 그 社會가 封建社會에서 資本主義社會로 移行하는 것은 自然스럽게 移行하여 가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때 日本의 統治下에 있었고 日本사람이 韓國을 支配한 直後였던 까닭에 韓國의 모든 國民은 被治者의 立場에서 이루어지는 資本主義에로의 移行이므로 必然性을 認定하지 않고 疑心과 疑惑을 가지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가 그대로 封建主義社會에서 歷史의 自然的인 흐름에 따라서 資本主義社會로 移行하였었는데 그때 우리는 마치 強要를 받으면서 資本主義社會로 移行하는것 같은 印象을 받으면서 넘어갔다. 여기서 國民全體에게 미치는 影響에는 資本主義社會 그 自體에 對해 커다란 疑惑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와같은 疑惑을 가진 國民大衆이 散在해 있는 데 그때를 같이 하여서 우리나라에는 政治的인 問題가 없어지는 同時에 일대 地域別로서 派閥이 생기기 始作하였다. 過去 우리나라에서는 老論, 少論, 南人, 北人の 政黨이 있었는데 이런 政黨은 當時に 政權을 掌握하기 為해서 許多한 貸된 일을 하였고, 남을 謀略도 하여 죽이기도 하였다. 開國以來로 政治人們이 서로 몰여서 서로 政權을 잡기 為해서 努力한다는 것은 그 當時の 政府形態에 差異가 있지마는 우리나라도 역시 過去 李朝時代에 政權派閥싸움이 있었다. 이러한 派閥이 나라가 없어지면서 同時に 서로 싸우고 혈脈던 目的이 없어졌다. 即 나라가 亡하자 政權掌握의 目的物인 權力의 統治가 日本사람들의 手中에 들어가자 政權派閥은 地域的인 派閥로 變質하였다. 여기서 鐵南이니, 湖南이니, 繩湖이니, 平安이니, 咸鏡道니 하는 地域的인 派閥이 생겼다. 이러한 派閥이 資本主義社會에로의 移行時생긴 근심과 맞붙어 結果的으로는 우리나라의 社會發展에 크다란 암이라고 할 수 있는 現在의 派閥意識을 助成하였다. 우리나라의 近代化에 있어서 가장 痛的存在는 地域을 中心으로 한 派閥이라고 생각 한다. 이와같은 地域的派閥心을 除去하는 方法은 地域的으로 생기는 生活水準의 均等化를 가져오는 것 외의 方法은 없을 것이다.

農事하는 사람은 農事하는 땅에서 農業을 하는것이 가장 適當하고 工業을 하는 땅에서는 工業을 하는 것이 가장 適當하다. 그러나 農業을 하는 땅이든 工業을 하는 땅이든 所得이 어느 程度 均等을 가져와야 한다. 換言하면 地域別로 發展하는 計劃이 이루어지고 地域別로

가장 올바른 發展이 自動的으로 이루어지는 形態를 助成해주기 前에는 이러한 地方色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現在 國民所得으로 보면 서울이 으뜸으로서 地域間의 많은 差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事實은 地域의in 派閥意識을 더욱 부채질 할뿐 아니라 地方色을 除去할 機會를 永遠히 없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우리나라에서는 地域計劃을 올바르게 세워 가지고 그 天賦의 힘을 그대로 活用할 수 있는 기회와 態度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하기 爲해서는前述한바와 같이 땅을 利用하는 目的에 따라서 天然을 改造하는 手段을 써야 한다. 天然을 改造하는데는 道路를 만들고 河川을 整備하며 必要할때는 北으로 흐르는 河川을 南으로 돌려주고 港灣이 없는곳에 港灣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함으로서 天然의 惠擇을 均等化하게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恒常 하느님은 公平하시다고 듣고 있으며 저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비가오는 것을 볼때면 나는 하느님이 公平하지 않다고 생각할때가 많다. 다른나라 即 獨逸과 같은 나라에서는 一年에 거의 均等하게 비가 오며 日本도 二期만 많은 비가오고는 거의 均等한데 韓國에서는 6, 7, 8, 三個月 동안만 비가 오고는 다른 때는 비가 없다. 그러니까 비가 많으면 洪水가 지고 그 時期가 지나가면 旱魃이 오므로, 반드시 하느님이 韓國에 對해서는 公平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여진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公平하지 않았다 하기 보다는 韓國사람에게 地域計劃을 빨리 樹立하여 가지고 그와같은것을 빨리 實行하면 할수록 잘 살 수있다는것을 가르키는것 같이 생각 할 수 있다. 비가 많이 온경우에는 물을 貯水池에 담아 두었다가 비가 아니오는 時期에 나누어 쓸 수 있는 것이다.

지금 大體로 보아서 서울 以北쪽은 南漢江 北漢江이 있어 물이 比較的 많은데 湖南地域에는 大體의으로 물이 모자란다. 한강물이 낙동강에 넘어가고 그것이 금강으로 빠져나가 한강, 금강, 낙동강, 삼대강이 됐다 갔다 하는 時期가 今後 20年~30年 內外로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 한다. 왜냐하면 歷史的으로 봐서 우리나라가 물을 가장 잘 쓴 나라이다. 서울에 首都를 定한것은 든전데 명당이 좋고 “무학”이 首都를 定하였다고 일반에서 모두 일컬어지고 있고 文獻도 그때 “보선학”이니 風水地理 學說에 依해서 만들어 졌다고 하나 우리들 地域計劃하는 사람의 눈으로 볼때는 그當時 사람들이 稅金을 받기 爲해서 서울에 首都를 定하였다고 생각한다. 稅金을 잘 받아드리자면 서울이 全國에서 제일 좋다. 그 당시의 稅金은 여러분이 아시는바와 같이 “ 베 ” 혹은 “ 布木 ” 혹은 “ 쌀 ”의 세가지가 稅金이었다. 지금같으면 電報한 장으로 돈이 오늘 釜山에 몇 億원이든지 가는데 그 당시 그것을 서울에 실어올리자면 물을 利用하는 수 밖에 없었다. 南漢江, 北漢江을 利用하여서 江原道, 忠淸道一部分 京畿道 全部를 한군데에 모아서 서울에 모을 수가 있었고 大同江물을 利用하여 그附近것을 모아서 배로서 서울에 가져올 수가 있었고 錦江 附近에서 忠淸 全北地方에서의 것을 가져올 수가 있었고 洛東江을 利用하여서 慶南北것을 가져 올 수 있었다. 물을 利用한다는

點에서 서울은 가장 稅金을 바치기 쉬운 곳이었다. 이러한 地形的인 條件下에서 咸鏡道만은 稅金을 自辨制度를 取하여 稅金을 거두어서 그곳에서 쓰게 하였다. 이러한 事實은 文獻上으로도 나타나는 것인데 咸鏡道만은 아무리 江을 利用하여도 東海와 西海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여 自辨을 取하게 하였다. 이런 等等을 생각하여 볼때 爲政者이든 知識人이든 반드시 自然을 그대로 利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때 地域派閥을 없애기 爲해서도 地域計劃이 早速히 實施가 되여야 하며 必要時에는 行政區域마저도 改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地域의으로 地域計劃을 樹立함으로서 地方色 除去를 實現해 나갈 수 있다고 本人은 생각한다. 지금 建設部에서는 그런것을 中心으로 해서 國土綜合開發計劃을 樹立하고 있다.

둘째 理由는 國民의 政府에 對한 思考方式의 奇現象이다. 6·25 事變을 通하여 우리가 南쪽으로 避身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서 부터 생긴 顯著한 우리나라의 奇現象인데, 戰爭이나서 먹고 살고 하는것은 죽든 살든 내 自身이지 政府고 누구고 依支할 수 없다는 그런 時期를 우리는 거쳐 왔다. 그런 時期를 거쳐가지고 서울에 收復한 뒤에도 如前히 그와같은 思考方式이 남아 있어 살고 못살고 하는것은 “나”이지 다른것은 所用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서도 漸次 政府가 救護의 손길을 뗄치고 다시 復興의 길을 發足하자 政府에 對해서는 依支할대로 依支하고 나먹는 것은 나의것대로 하고 네것은 네것이고 나의것은 나의것이다 하는思考가 全市民에게 퍼지고 있다. 即 政府는 무엇이든지 無料로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政府가 하는일에 對해서 일단 反對를 하지 말아야 할텐데 無條件 反對를 해 보는 것이다. 한번은 서울市가 큰 事業을 實施하는데 自己에게 큰 利益임에도 不拘하고 無條件 反對를 하는 사람이 있어 물어 보니 反對를 하면 그만큼 더 利益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것을 學問上으로 볼때 自己厚生과 社會厚生의 둘이 合해 가지고 人間生活을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一般的으로 都市는 社會厚生이 크고 個人自己自身의 自己厚生은 적은데 反해서 農村일수록 自己厚生이 크고 社會厚生이 적다. 그런까닭에 都市사람은 農村사람보다 比較的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社會厚生의 施設이 더 많은 까닭이다. 農村에서 農事하는 사람은 호미 한자루라도 쥐고 있는데 都市에서 一般勞動하는 사람은 주먹 하나만 가지고서도 農村에서 農事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산다. 더 잘 산다는 말은 고쳐말하면 病이 들면 곧 病院에 갈 수 있고 또 學校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밤중이라도 어디가서 글을 배울 수 있는데 農村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것은 社會厚生이 큰 까닭이며 이 社會厚生을 크게 하는것이 要는 人間으로 하여금 人間社會에 있어서 結合을 敦篤하게 하는 길이다.

都市에 있어서는 이웃간 모르는 사람이 許多하지마는 라디오, TV, 新聞, 책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이러한 사람이며 委員長은 이런 분이다라고 委員長의 낮을 못본 사람일지라도 委員長의 이름만 보면 안다. 이렇게 되는것은 社會厚生이 큰 까닭이며 이 社會厚生을 크게 할려면 역시 都市・地域計劃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이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는 經濟計劃만 가지고서는 도저히近代化 시킬 수 없는段階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經濟發展이라고 자꾸 말들을 하는데 經濟發展全體에서 보아도 그러한現象은 顯著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第一次五個年 計劃으로 平均 8.3%의 經濟成長을 이루 하였으며 더욱이 1966年에는 11.4%라는 아주高度의發展을 하였다. 高度로發展한 까닭에 世界各國에서 稱讚을 하고 자랑도 하며 外國에 나가서 우리들自身도 자랑을 한다. 外國에 갈때 대개 News映畫 혹은 pamphlet를 만들어 가지고 간다고 할때 언제든지 자랑을 한다. 그러나 果然 우리韓國經濟가 올바른 position에 있느냐 하는 물음에 對해서는肯定的인答을 할 수 없다. 그理由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한가지는 都市·地域開發에 對한 權威를 갖고 있지 않고, 計劃과 實踐할 誠意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努力이 必要하다. 우리經濟가發展해가는 것을 資金面에서 보면 1953년부터 1962年 사이에 投資한 것 중 밥먹고 사는것을 除去하고 總投資와 都市·地域開發에 對한 投資의 對比는 거의平行線을 긋고 있었다. 1962年부터 產業活動에 對한 것, (이것을 經濟的으로는 直接生產活動(Direct productivity activity)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여기에 對한 適切한 用語가 없지마는 產業投資라고 번역을 해본다.) 產業投資에 對한 것은 아주增加를 하였으나 그反面에 都市·地域開發에 對한 投資 即 社會間接資本(Social overhead capital)을 減少하였다. 그러니까 現在直接生產活動과 社會間接資本間에 gap가 있으며 이러한 狀態下에서는 經濟가 더以上 크게發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오늘의 우리나라 經濟에 있어서 이것이 解消되지 않는限우리經濟는 보다 더 크게發展하기에는 여러가지 隘路點을 가져 올 것이다, 이러한事實을豫見하기에는 어렵지 않은事態에 있다. 이런觀點에서 經濟發展을 為해서라도 지금都市·地域開發計劃이 가장緊急한問題로 나타나고 그地域開發計劃이 없이 그때의 주며九九式으로 하는일이 얼마나害로운 것인가는近間に 아주顯著히 나타나고 있다. 昨年南韓地方에 旱魃이 왔었으며 지금도 旱魃이繼續되고 있지마는 조그마한 水源池는 거의 말라 버렸다. 水道물은 커녕 물을 먹을수도 없게 되었다. 全羅南道같은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軍隊車輛을 數百臺動員하고 軍艦을動員하여 結局 물을 먹여서 살아 왔던 것이다. 萬一政府의行政力이 弱했드라면 밥을 짖어 죽은 사람은 둘째로 치고 물을 못먹어 말라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이런 狀態下에서 지금 우리가 福祉가 어떻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筆者는 이런職責을 맡게된直後에 이런問題를 두고 全羅南道를 갖다온 일이 있었는데 이地帶에 있어서 물問題는 어느 때든지 겪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런것은 모두가 計劃의缺如이고 또 計劃이 있다 하더라도 計劃을 實踐할 誠意가 없는 까닭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經濟發展을 為해서도 가장重要한것은 지금 地域開發計劃을樹立하여 社會間接資本(SOC)의 適正量을 供給하는 方法이摸索되고 그것이 實踐에 옮겨지지 않고서는 우리經濟는發展하기가 어렵다.

昨年末에 世界銀行(IBRD)에서 온 經濟 專門家들이 韓國經濟를 分析한 結果를 報告한 報告書가 있다. 네권의 冊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마지막 第四編이 대개 이 問題에 對해서 쓰여졌는데 맨 첫번 第一編에 그들이 指摘하기를 韓國經濟가 놀라울 程度로 發展을 하였고 今後도 놀라울 發展을 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몇가지 條件을 附言하고 있다. 첫째가 輸送力의 強化이고 둘째는 電力 셋째는 물을 供給하는 方法을 講究하는 것이다. 그以外 여러가지 原因을 分析하고 있는중에 韓國建設業者에 對한 称讚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이때까지 韓國經濟를 指摘한 가운데서 제일 처음 나타난것이다. 이와 같은것은 唯獨 筆者가 여기서 그 分野를 그나마도 國土計劃 都市・地域計劃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我田引水格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外國의 專門家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事實을 알려 드릴려고 하는 것이다.

다음에 또 한가지 恒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愛國心이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 愛國者라는 것은 如何히 規定하며 어떻게 하면 모든 國民이 愛國者가 되겠느냐 하는 問題이다. 한사람 두사람 愛國者가 되여 보았자 이제는 그렇게 신통한 일이 될것 같지가 않다. 그 前에는 한 사람의 愛國者이고, 장수가 나타나서 칼만 휘둘으면 數百名이라도 당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科學이 發達한 오늘날에는 한사람 한사람 힘이라면 거의 無用之物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보면 全國民이 所謂 愛國하는 사람이 되여야 겠는데 이런것은 곧 國民組織이라는 問題와 結付된다고 생각 한다. 過去에는 처음에 王이 統治民族의 核이 되여서 그 社會를 이끌고 나갔다. 어떤 社會든지 어떤 땅이든지 核이 없이는 發展을 할수가 없으며 이것 은 땅이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한 집에 家長이 신통치 못하면 그집이 잘될 수가 없고 한 나라의 指導者가 신통치 못하면 그 나라가 잘될 수 없듯이 땅에도 역시 核이 形成되는데 한가지의 核이 形成되었을때 그 核을 中心으로해서, 서울이면 서울을 大核으로 하여 가지고 다시 分裂되는 中核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仁川, 水原이 이렇게 돌아가는데,大概 서울附近에는 自然的으로 發生되었던 核이 그대로 形成되어 가지고 여러분이 地圖를 펴 놓고 compass로 원을 돌리면 거의 맞아 떨어지는 아주 典形의으로 發展된 部分이 서울附近이다 이렇게 大核, 中核, 小核이 形成되어서 大서울이라는것이 形成되고 있는데 이와같이 形成되었을때 大核 中核 小核에 있어서 사람의 힘이 그 땅하고 結付가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愛國心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다. 고쳐말하면 땅과 그 땅위에 있는 사람의 피의 結合이 없는 社會는 愛國心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땅과 피의 結合이라는 것은 筆者가 머리를 써서 말한것 같으나 이것은 獨逸帝國時 獨逸國 皇帝旗를 만든 사람인 Hans Keril이 만든 用語이다.

이렇게 볼때 國民組織이라는 問題도 고쳐 말하면 統治民族에서부터 資本家와 權力家 사이의 結合, 이런 結合體가 생길때까지 少數가 多數를 支配하였다. 이런 政體는 唯獨 韓國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았다. 英國과 같은 나라에서 럭츠버그와 만체스터 같은 市에서는 市民權을 가진 사람이 7 사람밖에 없었다. 그렇게 少數가 多數를支配하던 時代는 原價를 莫論하고, 오히려 歐羅巴 地域이 더 甚하였던 것 같다. Royal Commission이 이에 對한 調査를 하여 發表함으로써 英國의 一大變革을 일으켰는데 如何든 少數가 多數를支配하던 時代가相當히 持續되어 오다가 여기에 말이 안되는 소리다 하고 일어난 것이 所謂 勤勞大衆의 擡頭이다. 現在 이런 時代를 어느程度 겪고 있고一部分에서는 지금도 겪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이던 간에 全部가 아니고一部分이一部分을支配하는 形態를 그 땅의 天賦의 資源을 그 땅위에 사는 社會成員으로서 開發하고 福祉를 向上한다는 生活圈을 中心으로 國民組織이 形成된다고 하면 그것은 全體의 問題이지一部가一部를支配한다는 形態는 免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社會組織에서는 地域計劃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地域計劃은 國民組織을 승화하고 참다운 恒久的인 것을 만드는 意味에서도 반드시 地域計劃이 없으면 안되겠다. 1·21 事態 以後 政府에서는 鄉軍을 組織하고 있는데,勿論 다 優秀한 사람들이기에 커다란 効果를 낼것이라고 期待를 하고 있다. 그러나 次元을 높혀 이야기를 해 보면, 만약 우리나라가 地域計劃을樹立하여 完全히 그 實効를 내고 그리하여 피와 땅의 結合이 이루어진 社會가 形成된다고 하면 그와 같은 鄉軍이 없어도 繼續 우리나라를 繁榮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地域計劃이란 그 때에 있어서 얼마나 重要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極히 簡單하게 韓國에서 생각하고 있는 即 建設部가 생각하고 있는 都市・地域計劃의 概要에 對해서 잠깐 그趣旨를 보기로 한다.

## 五. 韓國에 있어서 都市・地域計劃에 對한 概要

建設部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全體에 對한 國土管理와 國土에 對한 秩序賦與 即 國土綜合開發計劃에 對한 理想이라고 할까 構想을 만들고 있다. 아직 發表할 段階에 있지는 못하나 發表를 곧 할 豫定에 있다. 이것은 韓國內部에서 뿐만 아니라 外國에서 이것을 專門한 사람들의 協力を 얻어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다. 일단 試案을 發表하여서 많은 國民의 同調와 많은 國民의 批判을 받은 後에 確定을 하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國土에 對한 本質을 먼저 파 해쳐야하고 그 本質을 中心으로 하여서 國土의 空間秩序를 賦與해야 한다. 그 空間秩序가 賦與되면 賦與된 그 秩序를 維持하고 發表시키기 爲해서 많은 構造物과 施設이 必要하게 된다. 이 施設이 自然을 改造하는 形態로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發表되기 前에 政府로서 하여야 할 일들을 하나씩 決定해 나가고 있다. 우선 당장 急한 機動力으로서 道路問題를 簡單히 紹介해 본다.

우리나라의 總 道路延長은 34,000km 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數로 보면 1.2m 가 모자

란다. 한 발자국만 뛰면 우리들 걸음을 다 걷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한 발자국 뛰면 約 1m 程度가 조금 넘거나 2m 가 조금 못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두 발자국만 뛰게되면 벌써 自己分數 以上을 使用했다는 證據가 된다. 이런 좁은길을 가지고 있는것이 우리나라 以外는 과히 많지 않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의 故鄉을 생각해보면 알것이다. 自動車 한台만 가면 오는 車가 “부부” 소리쳐서 한車가 뒷걸음해 가지고 어디가서 서지 않으면 車가 못 通하게 된다. 여기서 建設部는 첫째로 道路의 大量計劃을 樹立하지 않을 수 없다. 昨年 1月에 確定을 본 計劃이나 이 計劃은 세가지로 크게 나누어 진다.

첫째 道路의 總面積과 總延長을 擴張하는 것이다. 먼저 延長은 約 5,500km 程度 71年度 까지 擴張을 하여 가지고 大體로 約 40,000km 까지 만든다. 面積을 넓히고자 하는 것은 農業을 위한 道路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農村에는 農業을 위한 道路가 거의 없으며 農村出身이면 알겠지만 農業을 하는 사람은 등에다가 肥料며 農產物을 지고 다니지 않고 서는 도저히 耕作地까지 가져갈 수가 없으며 運搬도 못한다. 이에 反해 우리나라 國民總生產에 있어서 占有하는 比率은 35% 乃至 많은해는 40% 까지 올라가는 우리 產業의 대강인데 거기에 對한 道路는 거의 만들어 지지않고 있다. 이런 狀況下에서 農民의 所得을 向上시킨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고 생각 할 수 있다. 먼저 農民의 文化를 올리고 農民의 生產, 所得生產水準을 올리는 길은 農路를 만들어 주는데 있다. 우선 “리야카”를 끌고 다음에는 “트락타” 等 Motorization 할 수 있는 方法이 우리나라의 農民에게도 導入되지 않는 限 農事은 改良되지 않고 農民의 所得은 向上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71年까지 約 5,000km 의 農路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資金의 出處는 外國에 가서 “바郎이”를 되고 구걸해오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農民들이 努力を 供給하는 사이에 먹는 食糧은 政府가 無償으로 支給하는 것이다. 勿論 構造物같은것은 地方政府가 해주겠지마는 大部分의것은 外國의 援助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둘째는 高速道路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 高速道路는 많이 P. R 되었기 때문에 簡單이 要約한다.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을 為해서 高速道路를 計劃하고 있으며 또한가지는 道路의 直線化를 圖謀하고자 하는데 있다.

셋째는 港灣을 改造하는 事業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年間に 港灣을 利用하는 總貨物 ton 數는 昨年에 約 1,700萬 ton 이었다. 이것은 再昨年에 比해서 約 30% 增加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反面에 우리나라에서 萬 ton 級이 接岸할 수가 있는 港灣施設은 釜山 한군데뿐이다. 現在 工事途中에 있는 仁川부두 工事が 來年未 끝나게 되면 約 2萬 ton 배가 接岸할 수 있도록 되여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所謂 公開開放社會(open society) 即 全世界를 對象으로하는 國民다운 生活을 할 수 있는 契機를 만들 수 있다.

넷째는 물 問題이다. 물 問題는 여러가지 難關이 있는 까닭에 韓國에서는 上流에 Dam 을

만들어서 물을 담고 中流는 河川을 開設하고 下流에는 廣域水道를 만들어 各 都市가 나누어 쓰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물 값은 서울이 約 13 원 程度이고, 仁川이 27~24 원 程度이다. 그러나 울산에는 大規模의 工業用水道를 만들어 ton 當 4 원 95 전이고, 鎮海 所謂 洛東江에서 鎮海를 거쳐 馬山을 지나가는 水道는 5 원 60 전이다. 이렇게 볼때 根本적으로 大規模의 水道를 많들지 않고서는 쌈 물을 供給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關係로 建設部는 今後에는 全部 大廣域水道制度로 고치려고 하고 있다. 이번에 동작동에서 흐르는 물을 끌어 가지고 仁川까지 내려가는 한 便 水原全體에 對해서 물을 供給하고자 하는 事業을 展開하고자 하는 것도 그때문이다. 조금씩 조금씩 물을 供給해 가지고는 물값이 비싸서 안된다. 이것이 어려운 問題中의 하나이다. 만일 國民所得이 1% 向上하였을때 물의 消費는 8% 增加한다는 것이 國際的 統計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問題를 解決하기 為해서 國土綜合開發計劃이라는 것을 가장 重要視하고, 또한 都市 및 地域計劃은 우리나라의 現在의 狀況에 있어서 經濟計劃을 빛나게 하고 經濟計劃을 올바르게 實施하기 為해서 또는 이것을 뒷받침 하기 為해서도 絶對的으로 必要한 事態에 있다.

各 道에서도 이러한 計劃을 하는 機構가 있지마는 여기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理論上으로는 都市 및 地域計劃이 必要한줄은 다 알고 있는 事實이지만 당장 일할 사람이 없는것이 오늘의 우리 韓國의 實情이다.

今般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에서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를 新設한것은 이러한 時代의in 要望에 符合하는 結晶體라고 할 수 있으며 今後에 우리나라 都市 및 地域計劃의 樹立과 實踐에 중추적인 힘이 될것을 確信하는 바이다.

그러나 計劃하는 사람은 언제나 貧困을 免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覺悟해야 되겠다.